

데스크 시각

누구를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인가



김 일 환 편집부국장

매번 받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이지만 납부 금액만 확인할 뿐 자세히 들여다 보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는 가계 운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일찍 찾아 온 더위 탓에 아무 생각 없이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기라도 했다간 다음 달에 어김없이 요금 폭탄을 맞는다.

은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관리비 고지서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해 세심하게 전력량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행 누진제 전기요금은 100kWh 이하로 사용할 경우 kWh당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할 경우 705.5원으로 11.6배의 차이가 난다.

여름철 가계부담 가중

사용하는 여름철의 경우에는 평소 사용량보다 60~100kWh 정도 증가하는데 평소 3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이 60kWh를 더 사용한다면 요금은 4만4390원에서 6만 6100원으로 전기요금이 약 50%가량 늘어난다.

무엇보다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 현장에서 쓰는 전기는 누진제의 적용을 받지 않

는다. 생산원가 (kWh당 113원)보다 싸다는 것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산업용(kWh당 107원)은 가정용(평균 123원)보다 싸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런 구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 증가가 전기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하다.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그뿐만이 아니다. 가정용 전기는 여름철만 되면 애꿎은 희생양이 된다. 지난 2011년 대정전 사태 이후 여름철만 되면 전력 대란에 대한 경고들이 쏟아져 나오던 올 여름이 예외도 어김없이 에어컨 등 냉방기 온도 올리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이 잇따르고 있다.

대란의 주범인 양 몰아가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지난 74년 산업화가 최우선의 가치이던 시절 시작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40여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돼 전력 사용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원전 증설을 통해 전력 공급 환경이 상전벽해로 변했지만 일반 가정의 부담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 국회 산하위 에너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 여당 의원이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상시 인하를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단방 처방밖에 되지 못한다.

/kih8@kwangju.co.kr

社說

남광주 변전소 부지 꼭 아파트 지어야 하나

광주시 남구 진월동 남광주변전소 유류 부지 활용을 놓고 한전과 지역민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전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고, 주민들은 도시 생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공원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한전은 남광주변전소 전체 부지 3만 1950㎡ 가운데 전월 공급시설로 써야 할 부지 2만9650㎡ 중 옥내 변전시설을 제외한 2만5000여㎡(8000평)에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아파트 대신 공원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1960년대 변전소 가동 이후 고압전류로 인한 불안감과 소음을 감내해 온 만큼 한전이 국내 최대 공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변전 시설 외 부지 전체에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일단 주민 의사를 참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청 측은 아파트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 기여’ 부분을 적극 강조함으로써 주민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자세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정부가 공기업의 수익 증대를 강조하고 있는 터에 한전의 고만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놀리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변전소 주변이 고층 아파트로 뻗어난 상황에서 수익만을 노려 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시민 정서와는 배치되는 데다 최선의 방안인지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부지 전체를 시민들에게 선뜻 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긴 하다. 그렇지만 그동안 불편을 참아 준 주민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통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도내 관광문화시설 수익 창출 방안 찾아야

전남 도내 22개 시·군이 대규모 투자비를 들여 건립한 공공 관광문화시설들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는 등 ‘혈세 먹는 하마’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들어선 전남 도내 각 시·군의 테마파크, 전시관, 기념관 등 관광문화시설의 운영 실태를 본보가 점검한 결과 36개 시설 가운데 지난해 수익을 낸 시설은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순천 드라마촬영장, 순천 국민여가캠핑장 등 3곳뿐이었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은 무려 339만 418명이 입장했지만 83억여 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다른 시설에 비해 입장 수입은 월등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몰리는 장흥 정남진 판매소우드랜드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들 시·군 관광·문화시설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신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방문객들의 기호나 추세 유행을 좇지 못하면서 콘텐츠 부실, 입장객 감소, 적자 증가 등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군이 무리없이 운영 실태를 본보가 점검한 결과 36개 시설 가운데 지난해 수익을 낸 시설은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순천 드라마촬영장, 순천 국민여가캠핑장 등 3곳뿐이었다.

따라서 수익원이 없고 운영비를 시·군이 부담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입장객이 증가할수록 적자폭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내 시·군은 무조건 신축에 나설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시설 운영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 윤리



김 창 균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한다. 즉, 탑승자 1명과 보행자 10명 중 누구를 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76%가 탑승자 1명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한 반면, 보행자와 탑승자가 1 : 1인 상황에서 이는 23%만이 보행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보행자가 탑승자보다 많을 경우 보행자를 살리도록 프로그래밍 된 차에 가족을 태우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이 태우지 않겠다고 답했고,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 10명을 희생시키도록 설정된 차를 구매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과반수가 구매하겠다고 반응하였다.

지난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챗봇(ChatBot, 채팅로봇) ‘테이’와 관련된 사건은 로봇 공학자의 윤리와 더불어 사용자들의 윤리적 인식과 태도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깨우쳐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다. 무인 자동차 앞에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난다면, 그 찰나의 순간 무인 자동차는 탑승자와 보행자 중 어느 쪽을 보호하도록 움직여야 할까?

미국 MIT 공대 이아드 라한 교수 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런 ‘무인 자동차의 딜레마’에 대해 ‘다수의 행복이 선(善)’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에 따라 답했다고

가 됐다.

데이터베이스화된 대량의 기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증명된 전략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글의 알고리즘처럼,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해석해서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프로그래밍된다. 테이도 팔로워와 실제 사람처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다시 대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알고리즘과 테이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알고리즘은 구체적인 규칙과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게임의 맥락에서 작동하지만, 테이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 속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윤리적 선택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작년에 구글의 포토 서비스가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공학자의 사소한 실수가 인종 차별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들의 사회적 관습과 문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테이가 일으킨 사건 이상의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테이가 히틀러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는 테일러의 작동을 멈추었고, 구글은 얼굴 인식에서

고릴라라는 이름을 아예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대응은 본질을 외면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의 개발 방향이 우리의 사회적 가치와 추구하는 이상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해야 한다.

더욱이 인터넷으로 대다수 사물과 산업이 묶이면서 거대 자본이 정보를 독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거대 자본에 의한 빅브라더의 출현도 문제지만, 사회·윤리적 문제를 도외시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독점이 가져올 폐해도 문제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무인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의 의식은 결국 수익과 효율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이 기계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성숙한 인격자를 기르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반성적 고찰도 중요한 시점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좌르르르...영사기여 오래도록 돌아다오”



정 애 하 주부

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고 어떤 때는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기도 했다. 광주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삶의 재충전을 하기도 했다.

극장을 방문할 때면 고장 난 시설도 직접 고치며 언제나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을 보며 늘 고마움을 느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곁에 있어 준 광주극장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광주극장에서는 극장을 사랑하고 지원해주는 관객을 위해 고민 끝에 후원회 모집에 나섰다 한다.

시대에 따라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고 많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극장 중 하나이며 전국에 남은 마지막 단관극장이기에 광주극장만은 우리 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다. 지금 현재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훗날 광주극장 영화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쉽게 접할 수 없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3세계 영화 등 정말 좋은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서 변변찮은 글이지만 신문 기고도 하게 됐다.

광주극장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추억 몇 개 짊어졌을 것이다. 어느 날 광주극장이 사무치게 그리워서 백일도 안 된 아기를 안고 극장에 갔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아이가 깨서 울까봐 가슴을 졸였지만 아기는 새근새근 잘도 자 주었다. “애 아기도 엄마가 영화가 좋아하느냐는구나 우리는 서로 통하는구나”하는 생각이 안도했고 너무 기뻐했다.

그 후 모임을 가서 언니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했더니 경기도 안 좋는데 아기를 데리고 갔다고 핀잔을 주셨다. 난 극장도 코고 사람이 없어서 공기가 좋다고 말 씀 드렸더니 극장 안을 떠다니는 공기가 나쁘다고 재차 조언을 들어야 했었다.

자막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예술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 광주극장이 의욕을 재충전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면 좋겠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이상주의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상상

을 해본다. 올해 10월1일 하루는 시민과 영화 애호가들이 광주극장에서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층과 2층 856석이 꽉 찬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떨린다.

광주극장 후원회가 결성되면서 자정 광주극장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며 여기 저기 홍보를 했다. 하지만 만만치 않았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져서, 여기저기 후원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등의 이유로 흔쾌히 후원회에 가입해 주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어떤 때는 분위기상 아예 후원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웠다.

광주극장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만 하지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사람을 대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긴다. 광주시민 약 150만명 중에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사람 2000명만 모이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은 말 한다. 날마다 생각하면 꼭 이루어진다고. 여기에 작은 행동까지 더한다면 정말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난 날마다 꿈을 꾸다.

無 等 鼓

타티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은 유럽에서 영국 히드로공항과 프랑스 샤를 드골공항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이며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공항이다. 동유럽으로 향하는 환승객들이 많은 공항이기도 하다.

지난달 28일 불가리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이스탄불 공항에서 2시간30분 동안 머물렀다. 공항은 온갖 피부색의 다국적 여행객들로 붐볐다. 새벽 1시20분 이후에 한국에 도착해 보니 이스탄불 공항 폭탄 테러로 42명이 숨지고 24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가 떴다.

여행이 떠나고 나서 정확히 20시간이 지난 뒤 공항 테러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니 모골이 송연했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타깃 테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

소프트타깃 테러는 1986년 이란-콘트라스캔들 당시 미국이 콘트라 반군 등을 공격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개념이 정립된 것은 2001년 미국 9·11테러 때다.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비행기를 납치해 뉴욕의 110층짜리 세

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타격한 장면을 TV를 통해 생생히 지켜보면서 지구촌 사람들은 경악했다.

당시 이 테러로 평범한 시민과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관 등 2948명이 목숨을 잃었다. 9·11테러는 민간인은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다는 전쟁의 기본 원칙을 무참하게 깨뜨린 사건으로 소프트타깃 테러의 시발점이 됐다.

이후 소프트타깃 테러는 국제사회에서 일상화됐다. 지난해 11월 13일에는 이스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가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 연쇄 테러를

저질러 130명이 사망했다. 올해 들어서도 소프트타깃 테러가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22명이 숨졌다. 소프트타깃 테러는 흔히 자살 폭탄테러로 나타나는 점에서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가미카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가미카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무모하고 부질없는 행동을 이제부터는 소프트타깃 테러로 불러야 할 듯하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소프트타깃 테러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2-055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우편물 유통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